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7~11/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3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8	딱돌 해설서	중암선해	금빛소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종호	운주사	10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자식을만드는지식

책세상

새롭게 발견한 화두 '어쩌라구', 詩가 되다



어쩌라구
윤재웅 지음
동악 펴냄
1만6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0@hanmail.net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가 문득 옆을 보니 사바야 / 사바로구나, 마지막 저녁일지도 모를 노을 속을 / 불타는 뿔의 황소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전부 / 사바였어요, 불난 집에서 나와도 내 몸은 여전히 // 불타고 있었어요… 불타고 있었어요…" - '사바사바' 중에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인 윤재웅 교수가 나이 60에 첫 시집 〈어쩌라구〉를 출간했다.

윤 교수는 고등학교 때 제1회 만해백일장에서 대상을 받은 인연으로 동국대학교에 진학했다. 1991년에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으로 등단했고, 1998년에 평론집 〈문학비평의 규범과 탈규범〉을 냈다. 2002년에 소설 〈판게아의 지도〉와 여섯 권의 동화책을 냈으며, 2020년에 여행 에세이 〈유럽인문산책〉을 출간했다. 윤 교수는 좋은 스승과 쟁쟁한 선배들 밑에서 문학을 배웠지만 정작 시를 많이 쓰지 않았다. 은사인 서정주의 시를 읽고 난 후 '서정주'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윤 교수는 대학원에 진학해 문학연구 쪽으로 걸었다. 평론으로 등단을 하고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시를 쓰는 일은 바라보지 않았다. 그런 그가 60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시를 쓰기 시작했다. 샘솟는 시심(詩心)을 어쩌지 못했다. 연구차 유럽에 다녀온 이후 출간한 〈유럽인문산책〉을 쓰면서 젊은 시절의 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되살아난 감수성에 또 하나의 부싯돌이 불을 붙였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라 소식하는 데 포만감을 주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남기지 말고 드세요… / … 어쩌라구?"

2019년 11월, 자승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아홉 명의 스님이 3개월 동안 이룬 상월결사, 한국불교사에 획기적인 불사로 기록된 그 결사가 60이 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시인에게 큰 화두로 다가왔던 것이다. 3개월의 결사 후, 시인은 천막 안에서의 혹독한 수행과정을 듣던 와중에 '어쩌라구'라는 문장과 만난다.



60세에 첫 시집〈어쩌라구〉를 출간한 윤재웅 교수.

"아홉 스님들이 정진 기간 중 때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묵언 규정을 지켜야 하니 화이트보드에 의견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 메시지들 중에 빛나는 화두가 있습니다. 상월결사의 제안자인 자승 스님께서 정진 도반 스님들께 바나나를 많이 드셔야 한다면서 툭 던진 말씀인데 제 눈에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어쩌라구. 생생성성(生生惺惺) 육박해 오는 시의 화두 같았습니다."

'바나나를 많이 드셔야 한다'는 메모 끝에 쓰여 있던 '어쩌라구' 이 한 문장이 시인에게 동지섣달의 꽃처럼 달려들었다고 한다. 시집 〈어쩌라구〉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는 '어쩌라구'는 윤재웅 시의 새로운 동기이자 새롭게 발견한 화두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라구'는 시인에게 선방 수좌들이 참구하는 '이뭣고' 이상으로 사바세계의 난감한 문제를 충격적으로 들이밀었다. 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의 답답함과 안타까움,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한 하소연으로 잘 어울렸다. '이뭣고'는 불교 화두의 독특한 언어이지만 '어쩌라구'는 보통사람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일상의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훨씬 현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보았다. 그러자 그간 내면에 쌓여 있던 온갖 목소리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시집 〈어쩌라구〉에 실린 60편의 시는 그렇게 3개월 동안 만들어졌다.

60세에 처음으로 출간한 시집
'불교'로 가득한 시60편 선보여
이야기체 · 전통서정시 등 다양
고교 때 만해백일장 대상 인연
상월결사서 발견한 '어쩌라구'
詩心 자극 3개월 만에 출간해

"〈전략〉 어쩌라구? 화사한 봄날 백주대낮 절마당에 이런 막다른 골목이 또 있나! 〈중략〉 절간에 온 개 한 마리를 두고 두 보살이 울먹거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어뜨케 어뜨케 하면서 제 부인님도 자기 불쌍한 가슴에 쬐그만 멍 하나 만들어 가집니다. 〈후략〉" - '개행자' 중에서

시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교'로 가득하다. 생로병사의 고통, 윤회의 아픔, 깨달았으면서도 사바에 남아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의 발원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형식면에서도 이야기체, 전통 서정시, 한 줄 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문장의 모습도 새롭다. 가끔씩 문법을 벗어나 마음의 어순을 그대로 받아 쓴 문장들은 깊은 빛깔과 의미를 띠면서 시의 묘미를 새삼 느끼게 한다. 그렇게 불과 3개월 동안에 지어진 60편의 시들은 불교의 본모습과 미래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시인은 "이런저런 인연과 실험적 형식이 뒤섞여 단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육십 편 중 어느 하나 바짝 황홀한 게 없습니다."고 시집에 대해 자평하고 있지만 시집 〈어쩌라구〉의 시 한 편 한 편은 모두 단정하고 황홀하다. 불가적인 공부와 안목으로 지은 시는 단정할 수밖에 없으며, 단정함 속에 들어앉은 깨달음의 활구들로 시는 바짝 황홀하다.

"'어쩌라구'는 불교의 말 끊어진 세계와 언어로 성스러운 절간을 짓는 시의 세계를 이어줍니다. 언어는 진리의 세계를 궁극적으로 전달할 수 없지만, 시는 언어로서의 신성한 공간을 짓고자 합니다.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습니다."

상월결사가 불교사에서 새로웠던 것처럼 시집 〈어쩌라구〉 역시 우리 불교 시문학의 새로운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교수가 시를 통해 새로운 화두를 참구한 노력이 우리의 천년 선불교에 새로운 화두를 더하는 불사가 될 수도 있음이다. 한 권의 시집이 어떤 회향을 불러올지 궁금해지는 것 역시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임이 분명해지면서 한 권의 시집에 많은 의미가 더해지길 기대한다.

책 속의 밑줄 긋기

"한세상 - 벚꽃 그늘에 서성이고 싶었어. / 그늘이 화안한 문 슬며시 열고 / 그녀와 함께 들어가고 싶었어. // 그늘이 흔들리니까 멀미가 났어. / 우리 아예 나무속으로 들어갈까? / 그녀는 바람처럼 소곤거렸어. // 나무속 달콤한 꽃잠을 잤어. / 잠깐 든 정인 줄 알았는데 / 일어나보니 몸이 사라졌어. // 그녀는 햇빛 되어 반짝거리고 / 나는 물이 되어 오래 울었어. / 한세상 그런 거야, 어쩌라구." 〈19쪽〉

"더러는 길바닥에 뭉그러진 고양이를 봐요. 아주 가끔은 머리 으깨진 어린 뱀을 보기도 해요. 길을 가다가 내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 길이 아닌지, 환한 저승이 그렇게 속삭이는 길이 아닌지, 비개인 햇빛 속을 가면서 생각해요. 〈중략〉 뭉개진 얼굴을 주워 들고, 길바닥을 통째로 주워 들고, 빛나는 척 내가 대신 쓰고 다니는지 몰라요. 세상이 온통 가면 천지예요. 소금쟁이…, 물방개…, 어릴 때 불에 태워 죽인 쥐에요. 어쩌라구? - '나도 내가 너무 많아 어리둥절해요' 중에서" 〈34쪽〉

"일연 스님 모자 행장기 - 꼬부랑 고승이 / 더 꼬부랑 노모를 돌본다. // 왕이 국존으로 모셔도 물러나 / 늙은 어미 기저귀 갈아드린다. // 어미 돌아간 뒤 / 〈삼국유사〉 집필하고 / 자신도 돌아간다. // 아들 일생은 인각사 / 돌 비문으로 남고 // 어미 생애는 먼 산 꼭지 속 / 산소로 눕는다. / 세월 흘러 팔백 년 // 아침 해가 뜨면 / 비문에 비친 빛이 날아가 / 어미 산소 어루만진다." 〈48쪽〉

"뭐가 다르겠습니까 - 쓰르르 찌르르 / 귀뚜라미가 웁니다. // 가을밤 마당 한 가득 / 울음바다를 풀어놓습니다. // 처음엔 자박자박거리더니 / 밤새 울음 운 오늘 아침엔 // 제 울음소리에 / 무릎 빠집니다. // 쓰르르 찌르르 / 귀도 더듬이도 다 잠깁니다. // 사람이라고 / 뭐가 다르겠습니까. // 환한 대낮을 / 캄캄한 밤처럼 살고 // 자기 울음으로 / 제 키마저 삼키면 // 고통의 바다를 홀로 낳아 / 스스로 문 잠그는 귀양살이입지요." 〈122~123쪽〉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군/계/일/학 ... 한국법당 들의 마이크를 20여 년 살펴본 결과...

1. 시주마이크 2. 업자들의 시설마이크 3. 스님 직접 구한 낙원동마이크 들로 성능들이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들 합니다. 이때! 본사의 **군계일학** 마이크로 스님께서 염불을 해보시는 순간 ! 구성지고 신명나는 소리에 살짝 놀라시며 자신의 염불에 취해 한참을 염불을 길게 하십니다. 이때! 총무실, 공양간 보살들이 스님 염불소리 같은데? 아니! 테프소리 같은데? 하며 확인 차 법당으로 몰려 옵니다. 이때! 염불을 마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허어!.. **군계일학** 이 따로 없군...의 말씀따라 **군계일학** 마이크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구매하지 않고 오직!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불렀을 때 그 동네 사찰 여럿을 모아 방문시 오직! 소리만 확인 해드린 후 바람같이 사라짐으로 부담이 전혀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군계일학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